忠毅公 權應銖장군 일대기

〔마지막회〕

權 五 庠
편집고문

2. 임란전쟁 실기[承前]
⑦경주성 탈환전투

이때 경주부윤 윤인함尹仁涵은 경주 남쪽 기계杞溪로 피신하고 없었기 때문에 경주성의 뒷수습은 판관 박의장에게 맡기고 권응수 군관은 당시 경상좌도 감사監司로 있다가 경상우도 감사로 옮겨가는 김성일에게로 가서 그동안의 전투 경위를 보고하게 된다. 박진 병사가 경주성 공격군을 편성한 경위와 첫번 싸움에서 패전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김성일 감사는 박진을 불러 질책함과 함께 사리를 설명하며 알아듣도록 타일렀으나 박진은 그대로 수긍하는 것같지 않았다. 이에 김성일 감사는 전후사정을 판단하여 권응수 군관의 전공戰功과 그 인물됨을 장계狀啓로 임금에게 보고하고 그에게 한 지방의 책임있는 자리를 맡길 것을 건의하게 된다. 그 장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최근에 적은 경상좌도의 인동仁同、대구大丘、청도淸道、밀양密陽、양산梁山과 동래東萊 등지에서 분탕, 살륙함이 전에 비하여 더욱 참혹하오나 장사將士들이 한 사람도 감히 항전하지 못하고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런데 권응수가 영천을 점거하고 있는 적을 섬멸하였습니다. 그 적을 섬멸한 뒤로부터 군성軍聲이 크게 떨치고 사졸士卒이 비로소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8월 20일에는 대구부사大丘府使 윤현尹晛이 적을 가볍게 보고 경솔하게 움직이다가 7백여 인의 전사자를 냈고 21일에는 병사 박진이 감사監司의 말을 듣지 않고 권응수의 휘하에서 활약하는 영천 복성의 의병을 빼앗아 무리하게 경주로 진격하다가 6백여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이와 같이 관군은 자기들이 무공을 세우려는 데 급급하여 경솔하게 적을 치다가 많은 희생자를 내고 보니 자연 민심이 저상沮喪하여 적을 보기만 하면 그대로 퇴각하고 그에 더하여 사졸士卒은 먹지 못하여 모두 궤산潰散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주의 적은 다 패해서 물러갔사오나 대구의 적은 부사府使 윤현이 패전한 후로 기세가 더욱 강성해져서 하양、경산 등지의 수령이 숨어있는 공산公山 등지의 사찰에 불을 지르고 분탕질을 하고 있사오니 만약 이대로 두어 적이 경주로 간다면 남아 있는 곡식도 보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신臣이 보옵건대 권응수는 날래고 용건勇健하며 슬기로운 지략이 있어 무장 중에 얻기 어려운 인재입니다. 만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방면의 책임을 독담獨擔시켜서 그가 하는대로 맡겨둔다면 반드시 큰 성공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병사 박진의 억제로 그가 뜻하는 바를 다 행사하지 못하게 되오니 식자識者들은 이를 깊이 탄식하는 바입니다. 병사가 연소年少 유재有才하고 사졸을 잘 무휼撫恤하기 때문에 도내道內의 관군이 모두 협력하여 군세는 약간 늘어나고 있사오나 다만 혼자서 전공을 세우려는 데 급급하여 한 도道의 병권兵權을 독단함으로써 의병의 활동을 저해하고 억압해서 그 소솔군사所率軍士를 모두 빼앗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주성 탈환전에 대한 다른 의견

경주성은 임진년 4월 21일 저항 없이 적장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적군 제2진에게 점령당했다. 그해 7월 27일 권응수 의병대장에 의해 영천이 수복되자 그에 고무되고 용기를 얻은 의병과 관군이 합동으로 경상좌병사 박진의 지휘 아래 8월 21일 적군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공격하다가 완패하여 박진 병사가 이끄는 관군과 정세아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은 모두 패주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모든 기록이 다 일치하고 있으나 그 다음 단계의 전투에 대한 기록은 권응수장군실기 및 왕조실록에서의 기록과 여타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

여타 기록의 내용을 보면, 경주성 탈환전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박진 군軍의 완패로 끝이 났고 2단계에서는 그해 9월 8일 박진 병사와 경주 판관 박의장이 이끄는 관군이 화포장火砲匠 이장손李長孫이 만들었다는 화포火砲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로 성을 공격함으로써 적군을 패퇴시켰다고 하고 있다.

당시 전세戰勢의 대략을 보면, 병사 박진은 경주 판관 박의장으로 하여금 군사 1천여명을 거느리게 하여 선봉장을 삼아 9월 8일 저녁에 비밀히 안강安康을 떠나 경주성 북쪽에 진출시켜 본진 4천여 병력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엄호하게 하였다. 그때 성안에 있던 적군은 이를 정탐한 후 성문을 굳게 지키는 한편, 성벽위에서 조총을 연달아 쏘면서 응전하므로 박진 군은 주변 산봉우리에서 일시에 봉화를 올리게 하고 함성을 지르며 북을 치니 마치 수만의 군사가 성을 포위한 것으로 착각한 적군은 감히 성문을 열고 나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같았다.

그때 박진 군은 은밀히 성벽 밑에 접근하여 미리 마련한 비격진천뢰를 성안으로 몇 발 쏘자, 그 포탄이 5,6백보를 날아가 성안의 객사客舍 마당 가운데 떨어지고, 적병이 둥근 공 모양의 포탄을 이상히 여겨 모여들어 만지기도 하고 두들겨 보기도 하였다. 그때 여러 개의 포탄이 여기저기서 터지자 철편이 사방으로 날아 30여명의 희생자가 나고 적진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박진 군은 성밖에서 그 폭음을 듣고 일시에 함성을 올리며 화전火箭으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바람이 없고 또 적이 미리 준비한 물을 퍼부어 화공은 실패로 끝난 채 밤새도록 교전을 계속하게 된다. 적군은 비격진천뢰의 포탄에 명중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땅에 엎어지고 강한 바람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하는 자가 잇달아 생기니 사기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적장은 곧 사기가 죽은 장령을 모아놓고 작전을 의논한 결과 드디어 다음날인 9월 9일에 울산쪽 서생포西生浦 방면으로 퇴각하게 된다.

그렇게 전투가 끝난 뒤 박진과 박의장 두 장수가 성안에 들어가 보니, 비격진천뢰로 죽은 적병 사상자가 수백이나 버려져 있었고 군량 1만 석을 그대로 두고 도망간 것으로 보아 황급하게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적의 부상자를 모두 수용하고 물자를 거두어 행재소行在所에 치계馳啓하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고 박진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서陞敍시켰다. 경주부윤 윤인함은 기계杞溪에 있으면서 박의장으로 하여금 먼저 들어가 경주성을 접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허점을 몇가지 지적해 보면, 8월 21일에 있었던 경주성 탈환전에서 참패하고 안강으로 도망간 박진 병사가 20일도 채 안된 사이에 비격진천뢰를 만들어 사용하여 적군에 큰 타격을 주어 경주성을 탈환할 수 있었다는 데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옛날식 전투라 하더라도 적진에서 날아온 둥근 쇳덩이를 적병이 만지고 두드렸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왜군은 자국의 전국시대를 거치느라 대부분 병사가 백전노장이 되어 있었을 텐데 전장에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 현대식 포탄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한 발에 희생되는 병사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비격진천뢰의 탄환 한 발에 30여명이 희생되었다는 것도 상상이 어려운 일이다. 또 몇 발의 비격진천뢰 탄환으로 적군이 혼비백산하여 서생포로 도주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일본 서적을 인용해 본다면, 일본의 구참모본부가 편찬한 ‘ 조센에끼朝鮮役 ’라는 문적에서는 비격진천뢰에 관한 것은 허위보고라고 단정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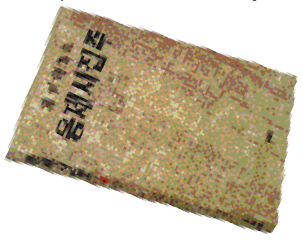
권응수장군실기와 조선왕조실록은 비교적 일치하고 있음에도 여타 역사 기록과는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당시 박진 병사가 권응수 군관을 박해하고 억누르는 상황이 계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그래서 박진 병사는 모든 전쟁 기록과 조정에 보내는 보고에서 권응수 군관의 전투상황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인 것이다.

권응수 군관은 임진년 9월 1일자로 경주성 탈환전 중에 이미 영천복성전투의 전과를 인정받아 임란이 일어나기 전의 당하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에서 당상관堂上官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경상좌도 병마우후兵馬虞侯로 발령됨으로써 의병에서 다시 관군이 되어 있었다. 그에 더하여 경주성 탈환전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임금으로부터 내구마內廐馬(궁중의 마구간에서 기르는 좋은 말)를 받았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비변사가 “ 경주성 싸움에서 권응수가 가장 잘 싸웠는데 말이 적탄에

상세한註解의완역판
原文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 · 지명 · 사물 색인

응 제 시 집 주

應 制 詩 集 註



權 近 原作
權 擥 集註
權 光 旭 譯註

신국판 352면 • 값 15,000원

《陽村會報》에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 걸쳐 연재한 노작의 역주문을 모아 다시 교열 • 수정하고 , 완전히 띄어쓰기를 하여 새롭게 조판한 원문과 인명 • 지명 및 사물 색인을 추가하여 한권의 책으로만들었습니다.
應制詩란 옛날 중국 황제의 명에 응하여지은 시란 뜻이며 조선개국초에 撰表 사건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陽村이 明에 사신으로 가 太祖 朱元璋을 전대하여 이를 해결하고 시문을 주고 받음으로써 老實秀才라는 칭상까지 받았는데 이 시집에는 양촌이 명태조에게 지어 올린 24수의 시와 황제가 직접 지어 양촌에게 준 3수의 시 및 중국 문인들의 응제시와 序跋文 등이실리고 거기에 양촌의 손자所閑堂 權擥의 방대한 분량의해석과 集註가 첨가되어 한권의책을 이룬 것입니다.

해돋이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 (02)734-3085 전송 (02)738-8935